“‘대깨문’ 방심하면 문대통령 못 지켜”

송영길 민주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윤석열은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
“청와대, 김기표 임명 안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 인선 당시 기수 파괴를 거론, “저는 애초부터 윤 전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청와대가 윤 전 총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최소한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예의 표시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저주에 가깝게 비판해서 선거 명분으로 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 ‘국민 약탈’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는 “너무 과하다”라며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23억원 탈취’ 1심 판결을 들어 “국민 재산을 약탈한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맹공한 데 대해선 “윤석열의 콘텐츠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나.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역공하며 이 지사 엄호에 나섰다.

송 대표는 청와대 검증 부실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친문 강성 지지층을 칭하는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직접 꺼내는 등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임기 말 당 주도권을 분명히 하면서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당 내부적으로는 일부 친문 강성파의 행태에 제동을 걸며 경선 과열 양상에 경고음을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각을 세운 뒤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 인선에 대해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이너서클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당내 친문 강성 당원들을 가리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당 후보가) 되면 야당이 낫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변화가 시작됐다. 집단적 린치는 많이 줄었다”며 “저도 엄청 문자가 들어오는데, 욕하는 문자는 차단한다. 존댓말 쓰는 것은 차단 안 하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문 대통령과의 인간적 의리라든지, 본인의 마음자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그 반사효과로 대선을 나갈 분 같지 않다”며 “저도 만나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에서 그나마 미래를 보는 후보라면 안철수·오세훈 후보 정도가 아닐까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다만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자중자애하라고 충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언론이 자중자애해줬으면 한다. 조 전 장관은 방어권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 “교황 평양 방문 추진”

목포 신정동 성당 감사 미사 참석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준대성전 지정 감사 미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미사 축사에서 “오늘 김희중 대주교와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사를 만나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는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목포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잠행 길어지는 최재형
이르면 내주 출마선언 가능성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꼭 일주일째다.

5일 복수의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지난 주말을 즈음해 지방으로 내려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다른 범야권 주자들이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며 쉴 틈 없이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정중동 행보다.

최 전 원장의 두문불출은 그러나 대선 준비에 완벽하게 몰입하기 위한 마지막 ‘숨 고르기’ 내지 암중모색 성격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내주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전후해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추격전’에 돌입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 처가 리스크’ 연일 공세

“장모 최종 유죄땐 중대 결단해야”
‘미 점령군’ 발언 공격 “색깔 논쟁”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또 윤 전 총장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놓고 직격한 데 대해서는 ‘철 지난 이념·색깔 논쟁’이라며 역공에도 나섰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며 장모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인이 중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뿐”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석열 일가야말로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을 예고편을 목도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장모의 면책각서(책임면제각서)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사 윤석열의 후광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관련 감찰 착수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2015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시는 경찰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전부 검찰의 관여와 간섭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장모 판결과 관련, “국민한테 송구스럽다거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검증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쟁점화에 나선 것과 관련,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백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이념과 색깔 논쟁 말고 미래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말해달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반공 보수, 수구 보수 세력들은 색깔론으로 쉽게 선거를 요리해왔다”며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엉덩이 탐정을 닮은 분도 참 딱하다. 철학의 빈곤은 그렇다 치고 고작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나오다니…”라며 윤 전 총장을 비꼬았다.

이 지사의 ‘점령군’ 언급 자체에는 “불안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윤 전 총장 등을 향해서는 “야권이 이를 정치 논쟁으로 확대하는 일은 그 저의가 불온하다”며 “이것이 새로운 정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조오섭·신정훈·강은미 의원 포함

제21대 국회 1기 예결위가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2기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7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오섭(북구갑)·신정훈(나주)·강은미(정의당·비례) 국회의원이 포함되고, 조 의원은 예결소위 배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2기 예결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33조에 달하는 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 결산, 2022년 본예산 등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경기부양, 민생안정 관련 예산과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예산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김남국, 고민정, 김병주, 맹성규, 문정복, 박홍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원택, 이장섭, 전재수, 전혜숙, 정태호, 장철민, 최기상, 허영, 홍정민 의원을 예결위로 선임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용역 ▲광주시의료원 설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총 21건 4533억원의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님들의 배려와 기대 속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지역발전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23일까지 2차 추경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추경 처리 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성토지(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010-8660-9801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융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융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융 9천
010-6670-98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